

# 광산구에 박용철문학관, 남구에 향약문화관

### 서창 문화마을 관광명소화, 북구엔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 광주시, 5개년 문화진흥 125개 세부 계획안 공개

광주 광산구에 박용철 문학관이 세워지고 지역 최초로 향약(鄕約)이 뿌리내린 남구에 향약문화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서창 향토문화마을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광주 북구에 청소년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16일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첫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토대로 마련한 법정계획으로 광주시와 5개구, 시산하 문화기관 등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공직인 문화현안을 종합한 안이다.

이 계획은 '문화로 풍요로운 열린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삼고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시민 문화접근성 확대,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추진과제로 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 문화연계사업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모두 125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지역문화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청년문화예술가 양성,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문화복지 인력을 기르는 과정도 운영된다. 주민들의 문화 감수성을 일깨우는 동네방네 합창단 운영, 마을축제 활성화 사업, 마을 마당극 주민 배우 양성을 위한 마당극단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광주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사업은 각 구별로 인프라와 문화콘텐츠를 고루 채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산구는 국제에

술 전시공간과 다문화교육장을 갖춘 아시아문화교류센터 건립을, 북구는 게임·공연장 시설을 갖춘 청소년 테마파크를 조성사업을 주관한다. 남구는 빛고를 공예창작촌 활성화, 동구는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을 맡아 추진한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아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술가들의 창작을 돕고 시민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조성에 나선다. 문화재단은 상설 연극전용관과 문화

예술인 연습장을 마련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 사업으로 정한 '한국화 호남진흥원' 설립 작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빛고를 문화관 건립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지역 문화발굴 창조 사업 부문에서는 원로 예술가 레지던시 조성사업과 한옥체험을 골자로 한 서창 향토문화마을 특화 사업도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 임방울국악제, 7080총장축제 등 기존 행사들은 정체성과 문화브랜드를 굳히는 행사로 치러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창작스튜디오 공동운영, 문화예술교육 치유센터 설립, 문화전당 주변 문화 시설 확충 등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문화 예술전문가와 학계,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5월까지 시행계획안을 확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작인프라를 지역예술계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 광주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안이 아직도 행정, 문화기관 위주로 수립되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6일 광주 남구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토론회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18사적지 27곳 잇는 '오월길' 만든다

### 광주시, 7월 착공 내년 완공

### 22억 들여 5개 코스로 추진

1980년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이 '오월길'로 새롭게 탄생한다.

광주시는 16일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27곳을 연결하는 이른바 '견고살은 오월길' 조성사업을 오는 7월에 착공, 2016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22억7000만원이 투입될 오월길 조성사업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사적지를 따라 5개 코스로 나눠 추진된다.

햇불, 희생, 광장, 열정, 영혼 등 5개 코스로 나눠 조성될 오월길은 5·18을 상징해 51.8km로 조성된다.

5·18의 햇불이 처음으로 타올랐던 햇불 코스는 전남대정문에서 옛 시외버스터미널, 옛 전남도청인 민주광장까지 잇는 6.7km다. 희생자가 발생했던 현장인 희생 코스는 전

남도청에서 남동성당·주남마을·기독교병원 등 8곳에 21.5km로 가장 짧고 가장 길다.

광장코스는 광주공원·농성광장·5·18기념공원 등 6곳에 11.1km며, 열정코스는 5·18기념공원에서 전남대정문, 무등경기장 등 3곳을 거치는 5.9km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영혼코스는 전남대정문과 5·18 국립묘지·광주교도소 등 3곳에 12.5km다.

이 오월길 프로젝트는 인연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 발굴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최근 국비를 확보,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다.

주요 사적지에는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알리는 설명문이 제작, 설치되고 일부에서는 상징 조형물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양동시장에는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모습이, 기독교병원앞에는 헌혈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시민들의 모습,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도청에는 격전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아쿠아플라넷·곡성 기차마을 입장료 깎아 드려요"

### 전남도, 봄관광주간 상품 준비

전남도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봄 관광주간'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122개 상품을 구성하고 입장료 할인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관광주간 동안 지난해 개별여행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광역 순환버스 '남도 구석구석 남도 한바퀴 타고!'를 대표 관광 상품으로 내놓았다. 또 담양군의 부채와 함께 하는 시서화 풍류문화체험학당, 보성군의 차잎 따기, 수제국자 만들기 등 온가족이 함께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상품 등 시·군·마다 체험, 역사, 힐링, 먹거리 등을 포함한 112개 다양한 관광상품을 준비했다.

또 관광주간 동안 전남에서는 여수의 아쿠아플라넷, 곡성의 기차마을 등 관광지를 비롯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모두 221개소의 입장료와 이용 요금을 5~50%까지 할인해줄 것으로 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전남도 광역 순환버스는

'남도한바퀴'는 수도권 관광객을 위해 광주 승정역과 연계 운행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관광지 해설을 제공한다. 또 6개 노선은 매일 운행하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여수와 진도 노선은 기존과 같이 주말에만 운행한다. 9900원이던 남도한바퀴 버스 요금도 관광주간 동안 8000원으로 내리고, 남도한바퀴 승객에게 77개 관광시설에서 5~20%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및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협력지사, 전남관광협회 등과 '관광주간지역협의회'를 구성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 시설 등을 대상으로 친절할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상태, 안전관리 등을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관광주간에 운영하는 관광상품, 할인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 또는 관광주간 홈페이지(spring.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발전엔 통합 조례안' 주목

### 전남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는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2일간 제29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는 안건 상정 전에 공청회 및 상임위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중구계 자본 및 관광객 유치, 도서벽지 교육환경 낙후에 대한 대책 등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는 상반기 전남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회기로, 22~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질문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일문일답 방식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DJ센터 사장 재공모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재공모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윤도씨가 사장으로 내정됐으나 최근 열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뒤 자진사퇴했다.

시장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광주시장과 이사회 추천 각 2명과 시의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임원추천위는 5월 중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2배수 후보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한다.

면접심사는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등을 평가한다.

윤 시장은 복수 후보 중 1명을 내정해 광주시의회 인사특위에 올려 청문회를 거친 뒤 시장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공모

전남도는 16일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 전남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있는 대표이사를 초빙하기 위해 17일부터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이사회 의결, 도의회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최종 임명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지역 및 연령제한은 없다.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3년 계약직이고, 보수는 임용 대상자의 능력 및 경력, 타 출연기관장 연봉 수준 등을 감안해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원자 원서 접수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복지재단 사무실(전남도청 민원동 3층)에서 받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남복지재단 행정지원팀(061-286-8841)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 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